

미래엔과 동아일보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vol.11

2017년 5월호

www.m-teacher.co.kr
edu.donga.com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인공지능(AI), 로봇기술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력'. 기술의 발달로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물로 구현하느냐' 보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이 미처 떠올리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교사들의 고민도 깊다.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는 교육법이 있다. 바로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이 그것. 디자인씽킹은 특정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제품을 사용할 다양한 잠재 소비자들을 고려해 디자인하는 사고방식에서 착안한 문제해결방식. 특정 제품을 만들 때 디자이너들은 제품의 기능, 재질, 색깔, 모양 등을 고려해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할머니가 들어도 무겁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할만한 색깔도 사용해 제작해야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 이러한 디자인적 사고방식을 일상의 모든 일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씽킹'이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다양한 사고를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디자인씽킹 교육법인 것.

디자인씽킹은 미국 스탠퍼드대가 디자인씽킹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D스쿨(Institute of Design atStanford·D-School)'을 2005년 설립하면서 세계에 널리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교육법인 것도 사실. 하지만 최근 들어 디자인씽킹을 전파하고 알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주목받는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 만든 자유학기제 전문 매거진으로,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SAP(독일의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코리아에서 CSR 팀장으로 근무하는 최송일 씨도 국내에서 디자인씽킹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사람 중 하나. 최 팀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강연을 진행하며 디자인씽킹을 하는 법과 디자인씽킹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최 팀장에게 디자인씽킹 교육은 무엇인지, 교사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디자인씽킹’

최송일 팀장에 따르면 디자인씽킹은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제품 제작자가 모든 잠재 소비자들을 고려해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처럼 일상의 모든 일에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보는 것.

최 팀장은 “대부분의 중학생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면서 “디자인씽킹을 통해 친구의 입장, 부모님의 입장, 선생님의 입장 등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집에서 신는 실내화의 기능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낸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중학생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단순히 자신이 갖고 싶은 고가의 운동화 디자인을 해당 실내화에 적용시키는 아이디어를 낼 것이다.

그러나 사고의 폭을 넓혀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단순히 겉모양이 아름다운 실내화는 필요한 물건이 아니다. 오히려 바닥에 걸레가 달려 신고만 다녀도 걸레질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더 유용하다는 생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더해 유치원생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충격을 잘 흡수해 마음껏 뛰어도 큰 소리가 나지 않는 실내화를 생각해낼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채롭게 낼 수 있는 것.

최 팀장은 “디자인씽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다양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보다 폭 넓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생 스스로 문제 찾고 해결하도록

디자인씽킹,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최 팀장은 “학생들 자신이 속한 그룹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것을 ‘디자인씽킹’을 통해 해결하도록 지도해보라”고 조언했다. 학생들이 학교 시설이나 수업, 학급회의 등에서 개선할만한 점을 찾아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학급회의의 문제점을 디자인씽킹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주관하는 학급회장의 입장, 평소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의 입장, 부끄러움이 많아 자신의 의견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학생의 입장 등 최대한 다양한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최 팀장은 “이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라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다보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학급회의 모델이 나온다”고 말했다.

소그룹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을 5~6명의 그룹으로 구성해 일상생활에 디자인씽킹을 적용해보도록 지도하는 것. 예를 들어 ‘버스 개선하기’를 미션으로 제시하고 그룹별로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한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손잡이에 손이 닿지 않는 초등생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중년 여성 등 최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입장에서 버스의 문제점을 찾아낸다. 이후 각자가 찾아낸 문제점을 모은 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다보면 ‘보다 나은 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최 팀장은 “디자인씽킹을 교육에 적용할 때는 학생들이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